

## 기분이 적잖히 더럽습니다.

---

매우 불쾌하고, 화나고, 몹시 슬픕니다. 필요할땐 소중한 사람이고, 필요에  
응하지 않으면 모욕을 시켜주시는 간사함에 치가 떨립니다. 인간가치존중?  
아름다운 인간상? 즐쳐드시고요. 그런식의 소중한 사람은 사양합니다. 제  
앞가름하기도 벅차거든요. 그리고 되도록이면 대놓고 욕해 주시기  
바랍니다.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구요.